

‘원투 펀치’로 버텼다... ‘최고 히트작’ 김도현 있었다

반환점 돈 2025 프로야구

KIA 결산 <상> 투수

곽도규·황동하 이탈, 마운드 운용 ‘땀질 처방’ 한계 노출 구원 ERA 4.95 ‘리그 9위’·WHIP ‘최하위’...리스크 작용 후반기 관건은 ‘끝까지 지켜내는 힘’...불펜 재정비 시급



중심은 있었지만, 기복도 분명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2025시즌 전반기 마운드는 선발의 안정감과 불펜의 불안이라는 극명한 양면을 드러냈다. 개막 직후부터 이어진 외국인 ‘원투펀치’의 호투와 일부 국내 선발의 분전은 분명한 수확이었지만, 경기 후반 불안정한 흐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 선발진: 외국인 듀오 중심의 안정감

전반기 팀 평균자책점은 4.26로 리그 5위권. WHIP(이닝당 출루허용률) 1.42, 피안타율 0.264로 기본적인 투수력은 유지했다. 이 가운데 뚜렷한 중심축은 선발진이었다.

선발 ERA는 3.78로 리그 5위. 46.4%이닝을 소화하며 WHIP 1.28, 피안타율 0.253을 기록했다. 네일과 올라리는 합계 20.4%이닝, ERA 2.69, WHIP 1.03으로 전체 흐름을 이끌었다. 김도현도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하며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다.

반면, 국내 선발진은 불안정했다. 양현종, 윤영철, 황동하, 김건국 등 다수 투수의 ERA가 5점대를 넘겼다. 외국인 원투펀치 의존도가 뚜렷했던 전반기였다.

▶ 불펜진: 성과보다 남은 과제

전반기 구원 ERA는 4.95로 리그 9위, WHIP(1.63)과 피안타율(0.280)은 최하위 수준이다. 세이브 23개 중 불펜세이브는 11개로 성공률은 63.9%에 그쳤다. 6월 한 달을 제외하곤 불펜 불안은 전반기 내내 리스크로 작용했다.

마무리 정해영은 23세이브를 기록하며 제 역할을 했지만, 불펜 4개와 피안타율 0.292는 흔들림의 여지를 남겼다. 평균자책점 3.25도 다소 부담스런 수치다.

‘셋업맨’ 조상우(24홀드) 역시 WHIP 1.59, BB/9(9이닝당 볼넷 비율) 5.45로 제구에 어려움을 겪었고, 완전한 신뢰를 주지 못했다.

최지민과 이준영도 주로 중반 투입되며 분전했지만, 실점 억제력과 투구 안정성 면에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그나마 전상현(17홀드)은 6월 들어 안정세를 회복하며 점차 제 궤도에 안착했다.

KIA의 팀 홀드는 리그 최다인 58개였지만, 이는 잦은 등판 기회에서 비롯된 수치일 뿐, 리드를 끝까지 지켜낸 안정적인 운영과는 거리가 있었다.



었다. 일부 불펜 자원들은 평균자책점이 10점대에 육박했고, 필승조와 추격조 간의 전력 차도 컸다.

▶ 월별 흐름: 6월 반등, 7월초 재하락

KIA 마운드는 3-5월 하위권 흐름 속에 6월 반등, 7월 초 재하락이라는 곡선을 그렸다.

3월 ERA 4.89(리그 7위), 4월 4.73(7위), 5월 4.11(7위)로 부진하던 팀 마운드는, 6월엔 ERA 3.47로 리그 2위에 올라섰다. 경기 후반 변수였던 불펜의 불넷도 확연히 감소하며, 제구 안정과 피칭 효율 모두 확실히 좋아졌다. 여기에 성영탁과 이호민이라는 새로운 카드가 가세하며 부하가 걸린 불펜진에 숨통이 트였다.

이 같은 안정 흐름은 6월 24경기 중 15승을 견



인하며, 리그 승률(0.682) 1위 달성의 핵심 동력이었다. 네일·올라·김도현의 꾸준한 선발 투구와 불펜의 조화가 시너지를 낸 결과였다.

하지만 전반기 막판(10일 기준), 선발 ERA는 3.98(8위), 불펜 ERA는 6.16(7위)로 다시 흔들렸고, 불펜 피안타율도 0.314로 리그 세 번째로 높았다. 마운드 전반에 피로감과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시기였다.

▶ 후반기 과제: ‘끝을 매조짓는 힘’

전체적으로 마운드는 ‘편중된 구성’이 뚜렷했다. 선발과 불펜 간 격차, 필승조·중간계투·추격조 간 전력 차가 컸다.

불펜 곽도규의 시즌 초반 이탈도 컸다. 팔꿈치 수술로 전력에서 빠지면서 마운드 운영의 유연



성이 떨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구원과 선발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황동하가 교통사고로 이탈하며, 투수진 유동 운용의 옵션도 제한됐다.

상위권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불펜 안정화가 필요하다. 정해영·조상우라는 필승조가 제 컨디션을 회복하고, 최지민·이준영 등 중간 계투진의 뒷받침이 더해져야 한다. 등판 부담을 분산하고, 경기 후반의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여리의 복귀도 변수다. 순조롭게 1군에 합류할 경우 선발진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선발만으론 이길 수 없다. ‘경기를 지키는 힘’ 없이는 순위 경쟁도 어렵다.

기대에 충족한 선발, 아쉬움 남긴 불펜.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KIA의 후반기 성적은, 결국 그 질문의 답에 달려 있다.

/주홍철기자

“운명의 한·일전...무조건 이겨야 우승이다”

홍명보호, 오늘 동아시안컵 최종전

골 득실 뒤져 비기면 준우승

한국 축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과 ‘동아시아 챔피언’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한국 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 20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홍콩과 중국을 상대로 2승씩을 올린 터라 지난 3차례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마지막 한일전에서 챔피언이 결정된다.

중국에 3-0, 홍콩에 2-0으로 이긴 한국(+5골)은 홍콩, 중국을 상대로 각각 6-1, 2-0 승리를 거둔 일본(+7골)에 골 득실에서 뒤진 2위다.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2022년 대회에서 일본에 빼앗긴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을 수 있다.

한국은 2019년 대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6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14일 마지막 훈련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홍명보 감독은 일본전에서 ‘베스트 11’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앞선 중국, 홍콩과 경기에서는 ‘실전 테스트’



2025년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안컵) 남자부 3차전 일본과의 경기를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4일 경기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원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선발진용으로 나섰으나 이번엔 최상의 멤버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은 “컨디션, 실력에서 팀 내 가장 좋은 경기력을 가진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것”이라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 1년 남는 시점에 본인들이 가진 것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내일 잘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한일전의 중요성을 예들려 강

조하면서도 선수들이 그 중앙감에 경기를 그려치지는 않기를 바라며 ‘즐겁게 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홍명보 감독은 “예전에는 (한일전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게 있었고 나도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느꼈다”면서 “한국 국가대표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건 당연하지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전술이나 경기력을 잃지는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궁 월드컵 4차 대회 리커브 여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한국 여자 대표팀. <대한양궁협회 제공>

광주은행 안산, 양궁 월드컵 4차대회 金

강재영·임시현과 팀이워 단체전 우승...개인전 우승 강재영 ‘2관왕’

여자 양궁 리커브 안산(광주은행 텐텐양궁단)이 올해 마지막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안산은 1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년 대양궁 월드컵 4차 대회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임시현(한국체대), 강재영(현대모비스)과 팀을 이워 전통 라이벌 중국을 세트스코어 6-2(67-55 57-57 56-56 56-55)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에선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한 한국 여자양궁은 영국, 말레이시아, 미국을 차례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강재영은 결승에서 대만의 17세 신예 쉬진쯔와 슈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올 시즌 첫 개인전 우승과 함께 2관왕을 차지했다. /박희중기자

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이 나선 한국 남자양궁은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에 패했으나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혼성단체전에서는 이우석과 임시현이 호흡을 맞춰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개인전에 출전한 김제덕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대회를 마무리한 대표팀은 다음달 11-14일 인천 국가대표 선수촌 양궁장내 특설무대에서 국가대표 B팀을 상대로 열리는 2차 스페셜 매치를 치르며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마지막 금빛 담금질에 나선다. /박희중기자

광주교통공사 황수련 ‘金 매트’

청풍기 유도 -52kg급 우승...-63kg급 이주연 ‘銀’·-70kg급 김혜미 ‘銅’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이 제16회 청풍기전국 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수련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52kg급 결승에서 장예진(포항시청)을 상대로 반칙승(지도 3개)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수련은 앞서 8강전서 황재림(포항시청)을 팔가로우킥기 한판승으로, 준결승서 양서우(순천시청)를 안다리후리기 유효승으로 각각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광주교통공사 이주연과 김혜미는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주연은 여자일반부 개인전 -63kg급에서 지연주(충북도청)와 채정아(포항시청)를 모두 한판승으로 꺾고 결승에서 올랐으나 차민지(제주도청)에게 절반패를 당해 은메달에 만족했다. 김혜미는 여자일반부 개인전 -70kg급에서 준결승에서 김지정(순천시청)을 상대로



제16회 청풍기전국유도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1개를 획득한 광주교통공사 유도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제공>

투혼을 발휘했으나 부상으로 기권하며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박희중기자

한국 여자배구, VNL서 ‘강등’ 확정

한국 여자배구가 내년에는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뛸 수 없게 됐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13일 일본 지바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점수 0-3으로 완패해 1승 11패를 기록하며 전체 18개 참가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승점 5로 한국과 동물이던 최하위 태

국이 14일 캐나다와 마지막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해 17위로 올라서면서 한국은 최하위로 추락해 강등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대회 때 태국을 제물로 국제대회 30연패에서 벗어났고 프랑스도 놀러 2승으로 16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최소 2승’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서 VNL 잔류에 실패했다. /연합뉴스